

OECD Economic Outlook: Analyses and Projections - June No. 79

Summary in Korean

OECD 경제 전망: 분석 및 예측 - 6 월 No. 79

국어 개요

사설

계속 활발하나 취약한 경기

Jean-Philippe Cotis, 경제국장

이전 전망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세계경제는 충격에 버티고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 입증해 보였다. 중국이 두 자리 수 경제확장세를 기록하고 인도는 고도의 급성장을 보이는 등 아시아 경제는 앞장서 나아갔다. 수년간 디플레이 취약성을 드러낸 일본은 민간 소비와 노동 소득이 수출 및 기업투자와 합세하여 경제성장의 주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신규 추이에 진입했다. 미국 경제는 태풍의 부정적 결과를 보긴 했으나 이는 일시적이었을뿐 이미 2006년 초부터 경제회복을 드러냈다. 유럽대륙 국가는 유가 인상에 일부 반응한 결과 지난 해 말 경제가 다시 부진했으나 2006년 초에는 가속화되었다.

기업 및 소비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OECD 국가간의 경제성장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수렴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으로 수 개월 간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 미국에서처럼 추세적 수준을 다소 상회하게 될 것이다. 경기 향상에 수차 실패했던 독일 경우, 현재 자리 잡은 경제회복이 소비자 수요에까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90년대 말 이래 최고로 높다. 실제로 기업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건설, 소매업 등 국내수요가 이끄는 기업부문은 신뢰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서비스 부문의 신뢰 역시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년 말 OECD 경기변동 추이에 국가간의 격차가 다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과거의 통화긴축으로 완만한 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놓았고, 유럽은 추세적 수준을 웃도는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아주 점진적으로 경기 불황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정책상의 실현가능성이나 경제개혁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현 여건을 감안하면, 유럽의 투자 회복에 가해진 구속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을 것이고 독일의 소비자 수요 증대는 부가가치세의 대폭 인상으로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다. 2007년 말 일본, 북미의 경기불황은 완전 상쇄돼 버린 상태일 것인 반면 유럽은 막대한 과잉 공급의 지속으로 인플레이 하향 압력을 계속 가중받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배럴당 유가가 70달러 안팎에 안정되는 여건에서 물가 전망은 대체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본 인플레이는 내년 초 1%를 달성, 이후 안정될 것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유로 지역 인플레이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할 경우 2%의 상한선을 밀도는 수준에서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작년 말 훨씬 높은 수준으로 최고 인플레이를 기록한 미국은 인플레이 완화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요컨대 유가와 상품 가격의 급변화가 물가 및 경제활동 전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상기 시나리오에 반영된 경상수지 불균형, 장기 금리 및 집값 등에 관련된 위험이 보다 심화될 조짐이다.

최근 해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확장 추세인 경향이 있었다. 단일 화폐 지역의 유럽이 이 경우였는데, 2007년이면 독일의 흑자 규모는 GDP의 4%를, 스페인의 적자 규모는 GDP의 10%를 육박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였기도 한 바 2007년 중국, 일본의 흑자규모는 GDP의 5.5-6%대를 향하고 미국의 적자규모는 7%를 넘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 지속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불균형은 세계 각지에서 최상의 투자 기회를 주는 지역으로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한다는 점과 함께 재정적, 구조적 및 환율 정책 분야에서의 실패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 이 불균형이 급격히 전개되면 세계경제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막심한 생산 손실을 ‘내성’이 부진한 지역에 집중하고 유로 지역에도 적잖은 손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상수지 불균형의 급격한 전개에 잇따른 위험 및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정책 수립 입지를 뒤늦게나마 강경히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동 *경제전망* 보고서가 시사하듯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된 국내 정책 변화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실제 구체화될지는 확실치 않다.

최근 주택 시장이 냉각기를 맞이한 영국, 호주 사례로 알 수 있듯 거시경제 차원에서 주택 시장 운영을 시도함으로써 완만한 정착의 기회를 노릴 순 있겠으나 동시에 특정 지역의 과장된 집값이나 비싼 주택 가격이 재정 및 경제 안정에 미치는 위험 또한 간과해선 안 될 사안이다. 더욱이 실질 집값은 이미 그 상승세가 70년대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최근 계속 급증가를 기록했고 가속화마저 보인 국가도 다수 있었다. 한편 장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가격이 과도로 부풀 위험성이 심화될 수 있다. 동 전망보고서에 게재한 계량분석결과에 의하면 2006년 집값 인상률이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장기 금리 인상 또한 최근 몇 개월의 수준으로 유지되면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대국가의 집값은 침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계화가 ‘수입 인플레이’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도 OECD 국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의 하나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중국 등 저비용의 제조업 경제국이 국제교역에 통합하면서 인플레이 완화의 긍정적 효과가 확실히 드러났는데 이로 지난 5년 동안 유로 지역이 본 효과는 연간 0.3%p, 미국은 0.1%p로 추정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유가 및 상품 가격의 수준 변동뿐 아니라 이들의 상승세까지 연장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더 이상 지적 호기심이 아닌 정책당국의 실제적 사안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 상품 가격

압력이 저비용의 제조 수입품으로 보는 인플레이 완화 효과를 월등히 앞지를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보호주의 압력이 크게 강화될 경우 보다 두드러질지 모른다.

최근의 유가 및 상품 가격 인상을 야기시킨 원인 요소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만큼 중앙은행 당국의 임무 수행은 보다 난해해질 수 있다. 왜냐면 현재 직면한 인플레이 충격이 일시적이지 아닌 영구 성격일 수 있고 또한 초기의 물가 상승이 소매 수준에까지 아직 완전히 미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이미 완전고용상태에 근접한 경제는 수입 인플레이의 충격 연장이 기대 인플레이의 상승세와 합세할 가능성이 커질 무렵에 즈음하여 긴축 강화에 무게를 두기 시작할지 모른다.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 유로 지역은 출발 시점이 경기불황의 심화가 인플레이 하락으로 이어질 무렵이다. 이에 반해 상품 가격 압력이 지속되고 경제회복의 안정적 확립에 대한 입증 사례가 늘어나면 통화긴축의 필요성은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실제 속도는 경제 불황의 위축을 뚜렷이 드러내는 신호를 조건으로 정립함이 바람직한데 이를 입증하는 견고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압력이 가중되는 여건임에도 재정 차원에서 잠시 목격된 정책활동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동 보고서의 별도 장에 상세히 개재했듯 이 압력은 보건 및 장기치료 지출에 기인하는데 노령화에는 부분적으로만 연관돼 있고 그 규모가 연금 관련 압력보다 크게 엄청난 경우도 더러 있다. 이 맥락에서 재정 건전화의 조속한 해결을 강구하여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함께 유럽의 일부 재정당국이 세수 경감 및 지출 증대로 경기상승을 격화하면서 이전 경기주기 절정에 소멸해 버린 여유 자금을 다음 경기하강에 앞서 마련해 놓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론적으로 재정정책 활용은 경기순환주기의 변동을 완화하고 세대간의 세금 부담을 고르게 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원 재배분을 유인한다고 보기도 한다. 불행히도 현재 많은 국가의 재정정책이 그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더 이상 유용한 정책도구가 아닌 문제 사안의 하나로써 점점 대두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적시에 재정정책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것이 현재 절박히 요구된 사항이다.

© OECD 2006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